

3개의 포도밭이 그려낸 소노마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44

시작은 투자였다. 포도밭을 사들여 정상급 와이너리에 포도를 공급해 명성을 날리면 더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와인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이 좋은 포도로 개성을 충분히 살린 와인을 만들고 싶더라 말이다. 운 좋았던 사모펀드 지분을 아예 정리하고는 와이너리를 세우고 포도밭을 더 사들였다. 이제는 소노마를 대표하는 사도네이, 피노누아 와이너리 '쓰리스틱스(Three Sticks)'의 설립자 빌 프라이스(Bill Price III)의 얘기다.

쓰리스틱스의 수출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맷슨(Christopher Mattson·사진)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와이너리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쓰리스틱스는 양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테루아와 포도밭 자체에 무게중심을 더 크게 둔다"며 "듀렐 빈야드를 시작으로 2012년 말에는 소노마의 그랑크뤼로 여겨지는 갱스 크라운 빈야드, 마지막으로 왈랄라 빈야드로 포도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빌 프라이스가 듀렐 포도밭을 사들인게 1998년인데 와이너리 쓰리스틱스가 설립된 것은 2002년이 되어서다. 와이너리 이름은 포도 나뭇가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



쓰리스틱스의 수출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맷슨이 와이너리의 역사와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빌의 별명에서 비롯됐다. 빌 프라이스 3세(III)에서 마지막 로마 숫자 때문에 어린 시절 '빌 쓰리스틱스'라고 불렸던 것에서 따왔다.

2023 빈티지부터는 쓰리스틱스의 모든 와인은 100% 소유한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만든다. 포도밭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토양과 기후, 포도나무의 상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재배와 수확, 양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쓰리스틱스가 포도밭 만큼이나 중시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포도를 재배할 지부터 시작해 어떻게 양조할 지 등 모든 물음에 답하는 주체"라며 "특히나 부르고뉴는 오랜 양조 경험으로 기후나 토양

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잘 알고 있지 만 당시만 해도 역사가 길지 않았던 소노마는 와인메이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쓰리스틱스 역시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밥 카브랄을 만나 한 단계 성장했고, 지금은 라이언 프리처드가 양조팀을 이끌고 있다.

쓰리스틱스를 있게한 듀렐 빈야드부터 시작한다. 지도에서 보듯 소노마의 남부 지역에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원산지 표시 명칭(AVA)으로 보면 소노마 밸리와 소노마 코스트, 카네로스에 걸쳐 있어 소노마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 듀렐 빈야드 와인이 소노마의 풍경을 한 잔에 담아낸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다.

낮엔 따뜻하지만 안개가 짙고, 오후엔



(왼쪽부터)쓰리스틱스 듀렐 빈야드 사도네이 2024, 갱스 크라운 빈야드 사도네이 2024, 갱스 크라운 빈야드 피노누아 2024, 프라이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피노누아 2023. /안상미 기자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포도알을 식혀 천천히 익게 한다. 땅은 돌이 많은 화산 토양이다.

갱스 크라운 빈야드는 소노마마운틴의 서쪽 경사면에 자리잡은 곳이다. 기후 자체로는 듀렐과 같이 서늘한 해양성이지만 더 강한 바람과 함께 안개가 끊임없이 몰아친다. 그래서 토양보다는 기후의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와인으로 만든다.

와인은 좀더 가벼운 '갱스 크라운 빈야드 사도네이 2024'부터 맛봐야 한다. 레몬, 청사과 같은 과실과 함께 고소한 아몬드 뉘앙스가 따라온다. 생동감 있는 산도와 짭짤함이 마치 사블리를 연상시킨다. 갱스 크라운이 감귤 계열의 향이 먼저라면 '듀렐 빈야드 사도네이 2024'는 잘 익은 노란 사과풍이다. 토스트향 등 오크 숙

성 느낌과 함께 산도도 좀 더 둥글다. 그래서 음식 페어링도 갱스 크라운 사도네이가 산뜻하게 화나 구운 생선이라면 듀렐 빈야드 사도네이는 치킨 등 흰살 육류나 크림소스 요리와 잘 어울린다.

'갱스 크라운 빈야드 피노누아 2024'는 서늘한 기후가 그대로 선명한 산도로 표현됐고, 민트 등 허브향도 인상적이다.

'프라이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피노누아 2023'은 듀렐 빈야드를 중심으로 6개 포도밭의 개성을 담아냈다. 검붉은 과실향과 함께 흠내음까지 이어진다. 아직 숙성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을 질감의 타닌과 함께 산도도 균형감을 잘 맞췄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관객이 직접 결말 만든다… 롯데컬처웍스, '카지노X' 개막

내달 20일 명동 롯데시네마서 공연 영화관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마련

롯데컬처웍스가 관객 참여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몰입형 공연 '인사이드 더 플레이 : 카지노X'를 선보인다. 영화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관객을 극 전개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11월 20일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인사이드

더 플레이 : 카지노X'를 개막한다고 15일 밝혔다. 티켓 예매는 오는 30일 티켓링크와 놀티켓에서 시작하며 얼리버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작품은 1조원 규모의 '매트릭스 카지노' 주주총회를 배경으로 권력 다툼과 배신을 그린다. 카지노 딜러 '혁' 역에는 김동현(그리), 노태현, 유권이 출연하며 '철' 역은 방태훈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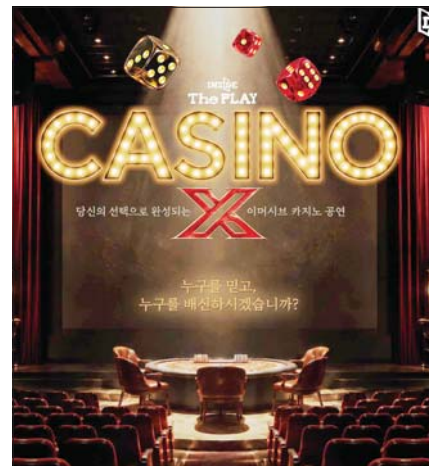
관객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멀티엔딩 구조가 특징이다. 관객은 공연에 참여하는 카지노 플레이어이자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 극에 참여한다. 프리쇼 관람 여부와 서사 참여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티켓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연은 영화관 로비와 라운지, 상영관을 활용해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롯데컬처웍스의 체험형 공연 시리즈 '인사이드 더 플레이'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기존 '카지노X'를 확장한

버전으로 원작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26회 공연됐다.

윤세인 롯데컬처웍스 라이브사업부장은 "수년간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원작 공연의 서사를 멀티플렉스 공간에 최적화해 더욱 입체적인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한 프로젝트"라며 "낮에는 영화를 관람하던 공간이 밤이 되면 카지노 주주총회장으로 변모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컬처웍스_인사이드 더 플레이 카지노X /롯데컬처웍스

10년 전 그 영화 다시 본다… CGV, 관객 투표로 재상영

'동주'·'캐롤' 등 2016년 영화 7편 후보 19일 최다 득표작 발표·27일 상영 예정

CGV가 개봉 10주년을 맞은 2016년 영화 7편을 후보로 선정하고 관객 투표를 통해 재상영 작품을 정한다.

CGV는 고객 참여형 상영 프로그램 'COD-7(CGV ON DEMAND)'의 10월 테마와 후보작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테마는 '아니 벌써 10년 됐다고?'

로, 후보작은 '4등', '나의 산티아고', '동주', '우리들', '최악의 하루', '캐롤', '헤이트풀' 등 7편이다.

투표는 15일 오전 9시부터 CGV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최다 득표작은 19일 오후 2시 공개되며, 같은 시각 예매가 시작된다.

CGV는 실제 예매 수요를 바탕으로 23일 낮 12시 최종 상영 여부를 확정하고, 상영이 결정된 작품은 27일 오후 7시 상영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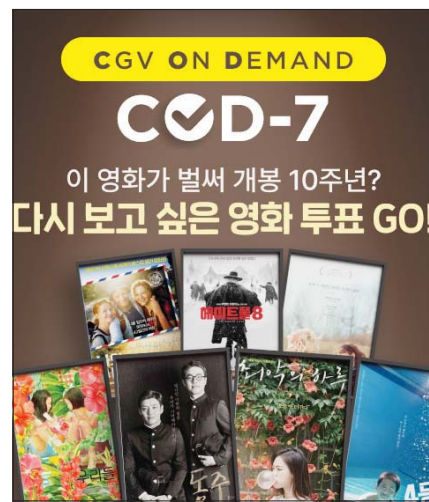
COD-7은 관객 투표로 상영 후보작을 선정한 뒤 실제 예매 수요에 따라 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테마에 맞춰 7편의 후보작을 공개하고, 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지난 9월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를 주제로 처음 진행한 COD-7에는 약 2만 40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상영이

진행된 10개 극장 모두 상영이 확정됐다.

장지연 CJ CGV 콘텐츠운영팀장은 "10월에는 개봉 10주년을 맞은 2016년 작품 가운데 관객들이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를 마련했다"며 "COD-7을 통해 관객이 원하는 다양한 작품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10월 'COD-7'

/CGV

메트로 한줄뉴스



▲30년 공화 텃밭 텍사스 초집전… 민주, 상원·주지사 등 6곳 중 5곳 근소 우위 /사진 뉴시스

▲AI 규제 진영, 美선거에 4800만달러… 산업계 '빅머니'에 맞대응

▲러,日和 영토분쟁 지역에서 '폭격훈련' 통보… 日 항의

▲트럼프 지지율 36%로 재임 중 최저… 물가·이란 전쟁에 민심 악화

▲푸틴 감싼 트럼프, 젤렌스키엔 "물러나라"… 선거 3주 앞 공화당 속 탄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 中리창 "양국 관계 새 단계 진입"